

6-14-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에베소서 2:1-10

말씀 제목: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천상에 함께 앉히신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에 우리의 혼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공중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접하게 하사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을 일으키시어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상에 함께 앉히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엡 2:8-10)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4)

그는 히브리인들을 향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에 율법을 따라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와 살을 가지고 나타나신 이유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 2:14-1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히 9:13-14;10:10,12-14)

아멘! 할렐루야!